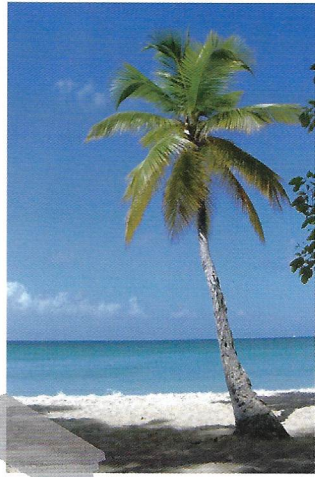




## 종려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종려주일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한 날이에요. 종려나무의 학명은 “phoenix dactylifera”인데, 나무를 베고, 나무가 있던 밑동을 불에 태워도 죽지 않고 다시 자라는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phoenix(불사조)’라는 말이 붙게 된 거예요.



종려주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종려주일 4행시를 지어 보세요.

종 : \_\_\_\_\_  
 려(여) : \_\_\_\_\_  
 주 : \_\_\_\_\_  
 일 : \_\_\_\_\_

(예) 종 : 종려주일은  
 려(여) : 여러 사람들이 모여  
 주 : 주님을 왕이라고 외치며  
 일 : 일제히 환영한 날이에요!



## 왜 왕을 기다렸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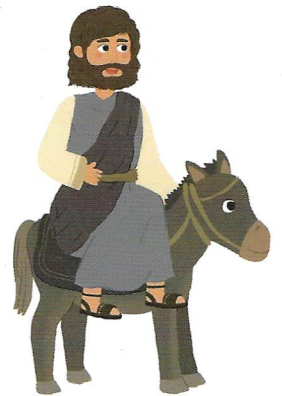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비롯해 자신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군사, 사법,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생활에서 로마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빌라도는 이스라엘에 물건을 사고팔 때 내는 관세, 어딘가로 이동할 때 내는 통행세 등의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쳤어요. 그런데 그 세금이 너무 과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았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낼 왕을 기다렸어요.

비록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로마의 군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채찍을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오늘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일부터 부활주일 전 날까지의 시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의 계획표에 요일별로 시간과 활동을 정해 기록하고, 실천해 보아요. 약속한 활동을 했을 경우 ‘실천 여부’란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세요.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시간						
활동						
실천 여부						

